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1 6, 전쟁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세션 16입니다.

좋아요, 다음 호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전쟁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 그렇다면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전쟁은 국가 간의 무력 충돌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혁명 또는 테러
집단에 대한 전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혁명 전쟁 자체는 진짜 전쟁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광범위한 규모의 결투로 정의합니다.

그는 전쟁이란, 인용하자면, 우리의 상대방이 우리의 의지를 충족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폭력 행위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관점이 있는데, 정의로운 전쟁 이론부터 시작해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악 관점이 있는데,
필요악 관점은 때로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지만, 전쟁
자체는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주의가 있는데, 이는 전쟁이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과 평화주의,
그리고 찬성과 반대 주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필요악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인정하건대 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대부분은 전쟁이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하거나, 때로는 정의롭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고 전쟁은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자의 관점인 평화주의로 시작하고, 다양한 종류의 평화주의를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평화주의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반전 평화주의는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보존하면서 국가적 폭력 사용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평화주의는 개인적 영역에서 폭력을 포기하지만 정치적 권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평화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살인 반대 사적 평화주의가 있고, 가장 강력한 반폭력 사적 평화주의가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보편적 평화주의가 있는데, 이는 사적 영역과 정치적 권위에 의한 모든 폭력과 살인에 반대합니다. 평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주장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주의자가 된다면 세상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모범 주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만약 아무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평화주의적 관점이나 평화주의적 실행을 보편화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상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올바른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덕적 모범 논증입니다. 본질적으로 칸트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평화주의를 보편화할 수 있지만, 폭력을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결코 폭력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종류의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간디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특히 정의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영혼을 정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힌두교 전통에서 간디는

아힘사 또는 비폭력을 강조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고통이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평화라는 영적 무기가 무형적으로 보이지만, 환경을 혁신하고 외부의 족쇄를 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옹호하고 어떤 종류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강력한 요점을 만들고, 심지어 전체 정치 체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주장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어떤 전쟁에 들어가는 항상 순손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방어 전쟁이든, 무고한 국가를 지키는 전쟁이든 말입니다. 전쟁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좋은 것이 무엇이든 항상 순손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폭군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특정 맥락에서 변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 학살에 대해 어떤 종류의 공격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주의자들이 여기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은 순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참전했었습니다.

그것은 주장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평화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자기 주장을 고수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 공리주의적 주장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평화주의에 대한 성경적 주장의 관점에서, 일부는 생명의 신성함에 호소합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야지 죽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은 죽이는 것을 배제합니다, 알아차리세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형태의 폭력, 즉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치게 할 뿐입니다.

평화주의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주장은 폭력에 대한 성경적 금지에 호소합니다. 특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비저항에 대해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을 고소하고 당신의 셔츠를 빼앗으려 하면, 당신의 겹옷도 내놓으십시오. 누가 당신을 한 마일 가도록 강요하면, 그와 함께 두 마일을 가십시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평화주의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비슷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여지를 두라고 말합니다.

악에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베드로서신에서 우리는 무저항의 교리를 발견한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는 말한다. 만일 선을 행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참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구절들은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개인적 폭력에는 적용되지만 반드시 국가 군사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자신을 방어할 때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국가 군사력이 부도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정의로운 전쟁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의로운 전쟁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Jus ad bellum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고려하고, *jus in bello*는 전쟁에서 행동을 제한하는 원칙을 고려합니다.

jus ad bellum, *jus in bello*의 조건은 토마스 아퀴나스,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우고 그로티우스 등 정의로운 전쟁 전통의 여러 사상가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라는 제목 아래에서 잠시 특정 아이디어를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주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정의에 대한 주장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이는 부당한 일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주장도 있는데, 전쟁의 목적은 특정한 종류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위한 폭력이 아니고, 그 자체를 위한 살인도 아닙니다. 평화의 더 나은 상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인트 오거스틴이 강조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전쟁과 관련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주장, 이스라엘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 많은 경우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특정 민족 집단을 파괴하라는 직접적인 신성한 명령.

그런 다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정부의 무력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정의로운 전쟁 이론가들이 지적한 *jus ad bellum*, 즉 전쟁에 나서는 데 있어서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전쟁은 적절한 권한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경단이나 준군사 조직을 배제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을 선포할 적절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최고 정부 기관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기준에 따르는 특정한 문제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각 기준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권한에 의한 선언이라는 요구 사항은 혁명가들이 통치하는 정부 권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혁명 전쟁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얻거나 선포할 적절한 권한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왜 공식적인 선언을 고집할까요? 확실히,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미국이 개입했지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이러한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둘째, 전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특히 자기 방어와 시민적 피해에 대한 처벌,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 첫 번째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에 합병된 중동 국가 쿠웨이트의 경우와 같습니다.

미국은 쿠웨이트를 해방하기 위해 이라크 군대를 격파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를 정당한 전쟁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의 정당한 원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적 공격에 대한 방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격은 어떨까요? 그리고 공격은 얼마나 심각해야 할까요? 간첩 행위는 어떨까요? 디지털 공격은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상당한 간섭은 어떨까요? 아니면 몇 개의 폭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공격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요즘 전자 기술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자 기술은 많은 경우 총알과 폭탄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정당한 원인으로 정확히 간주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전체 이슈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하위 주제 중 하나입니다. 셋째,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평화와 공정성의 결과를 확보하려는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기준만큼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가들이 종종 강조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평화적 수단이 고갈되어야만 국가 군사력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수단이 고갈되었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2003년, 미국이 2차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로 돌아가기 전에 이라크 지도부인 사담 후세인이 17개의 국가 안보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온갖 종류의 경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양원 전체의 압도적 다수의 미국 지도자들이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라크에 미국이 들어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데 있어서 두드러진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게 적절한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의로운 전쟁 이론가들은,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 갈등을 해결할 다른 모든 수단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단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니,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적절한 다음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성공 가능성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평가하기가 종종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싸우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기회가 얼마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1991년에 들어가기 전에 이라크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길게 논의했던 걸 기억해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장기적인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글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군대는 단 며칠 만에 이라크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그 경험 때문에, 글썄요, 이건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에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라크 전역을 돌며 공화국을 세울 거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그 반대였어.

전쟁의 초기 단계가 비교적 쉬웠더라도, 장기적인 노력은 극도로 어렵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어서 예측하고 이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쟁에 대한 정의, 즉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Jus in bello*의 조건에 주의를 돌려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해서, 전쟁을 실제로 벌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비례성의 원칙인데, 이는 사용되는 무력의 종류와 범위가 위협의 본질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핵무기는 항상 과도하기 때문에 항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위협이 무엇이든,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에 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게 쉬운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비례적 대응입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군사 기계와 전투원만이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 나라나 다른 나라가 도시를 폭격하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공격을 받았을 때 뉴스 보도에서 종종 강조되지만, 반드시 뉴스 보도에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또는 과실로 그렇게 많은 민간인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전쟁 행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부수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더라도 군사 기계와 전투원만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든 전투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폭탄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까? 대부분은 전쟁 기계, 예를 들어 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나 일본이 전투기와 포병을 만들었던 것도 적절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로부터 한 단계 더 떨어진 사람들, 즉 기업 측에 연루되어, 예를 들어 정부와 철강 및 기타 원자재를 생산하여 이러한 공장으로 운송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기업과 연루된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떨어진 사람들은, 그 측수가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어서 연루된 사람들이 적절한 표적이 될까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기업이 군수 장비 생산과 정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죽이는 부수적 피해는 때때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과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많은 경우 무고한 사람이나 민간인이 죽을 가능성이 큼니다.

전쟁과 관련된 공정한 행위를 고려하는 세 번째 맥락은 *juice postbellum*이며, 이는 전쟁 후의 공정한 행위에 대한 조건을 고려합니다. 이는 *juice ad bellum*과 *juice in bello*만큼 많이 논의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차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패배한 국가가 항복 조건에 서명하면, 승자는 패배한 국가에 대한 행동이나 그에 대한 행동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Brian Orand라는 학자는 전쟁 후 공정한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권장합니다.

그는 평화 정착 조건은 공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차별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중 하나는 존중의 원칙으로, 패배자의 권리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문화 전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거나,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거나, 당신의 문화적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복당한 자의 권리와 전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저 차별일 뿐입니다. 이는 지도자, 군인, 민간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전쟁을 벌인 국가 내의 지도자와 군인은 형사 재판과 전쟁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인은 그러한 혐의에 면제되며, 그 사회 내의 누군가가 전쟁의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공정한 보상. 이는 승리에 대한 주장이 전쟁의 성격과 상응해야 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경우, 그 경우의 결과 중 하나는 독일이 온갖 보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전쟁의 성격이 유럽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그들은 오랫동안 돈을 지불해야 했고, 또한 자신의 군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자신의 군대를 갖는 측면에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독일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한 군대가 없었고,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미국 군대는 오랫동안 유럽의 수호자였으며, 우리의 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외를 취했습니다.

군사 예산을 보면, 미국 군대가 일부 유럽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야 하지만, 이는 2차 세계 대전의 결과이며, 특히 독일과 그들의 군사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 얼마나 오래, 몇 년, 몇 십 년, 몇 세대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전쟁 후 공정한 보상이라는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의 한 예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안보입니다.

패배한 나라는 미래의 공격에 대비해 일정한 보안을 받아야 하며, 특히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전쟁 후 패배한 나라가 자신의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처럼 자신의 군대를 개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나라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승자는 이 경우 패배한 나라가 적절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하며, 이는 미국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jus post bellum*에 대한 오렌지 조건이며, 이것으로 전쟁 윤리에 대한 논의를 마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세션 16입니다.